



2023년 / 11월 5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1월 27일(월) 16시: 2024년 연구원 달력 제작 편집회의

■ 연구원 소식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 안내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사일난一事一難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시대를 노래하는 음유시인 박남준 작가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본인의 책을 서로 나누는 도서나눔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도서를 다른 회원에게 기증하고 다른 회원의 추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드립니다.

- 시간 : 2023.12.16(토) 17시 - 20시

- 장소 : 장가네왕족발 2층 (전주 완산구 동문길24 / 063-282-7476)

경기평화누리길 제2구간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사적 제139호에 해당하는 문수산성을 다시 마주했다. 성의 둘레 약 2,400m라고 하는데, 강화의 갑곶진甲串鎭을 마주한 문수산文殊山의 험준한 줄기를 따라 이어졌다. 해안지대를 연결한 성인데, 오늘날 해안 쪽의 성벽과 문루門樓는 모두 사라졌다. 겨울이라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온 성벽의 형상이 뚜렷했다.

산성의 명칭은 기존의 사찰 문수사文殊寺에서 유래하였다. 강화의 초입을 지킬 목적으로, 숙종 20년인 1694년에 축성되었다. 그리고 순조 12년인 1812년에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다. 먼저 잘 다듬은 돌로 성을 견고하게 쌓은 다음, 그 위에 여장女牆을 둘렀다. 여장은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성문으로는 취예루取豫樓·공해루控海樓 등 세 개의 문루와 세 개의 암문暗門이 있었다. 암문은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누각 없이 세운, 이른바 숨겨놓은 문을 의미한다. 이 성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하다. 이때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었다.



정상의 장대將臺에 올라서서 멀리 북한의 개풍군 쪽을 한참이나 바라본 까닭은 다름이 아니었다. 저 강 건너 가까운 곳 어느 마을인가가 소설가 박완서 씨의 고향이라고 했던가? 문득 선생의 단편 소설 가운데 <엄마의 말뚝.2>의 한 대목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빠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평생을 의지하던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하였다. 남달리 똑똑하고 심성 또한 고왔던, 알토란 같은 외아들이라고 했던가? 그 아들의 뺨가루를 고향이 바라보이는 바닷가에 뿌리던 어미의 심정은 오죽하였겠는가?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나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